

근로청소년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시내 일부 직업훈련생을 중심으로—

박 명 윤*

- I. 서 론
- II. 조사내용 및 방법
- III. 조사결과
- IV. 고 찰
- V. 결 론
- VI. 대 책

I. 서 론

청소년문제는 고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사회 문제로 취급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과 같이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청소년문제는 이전의 문제와는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문제의 원인은 그 시대 상황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문제를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가정, 학교, 사회환경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특히 산업사회의 발달은 급격한 공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가정·학교·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변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이들 세 환경의 교육적 기능의 상실을 가져 왔으며 이것이 청소년문제의 중요한 원인이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문제 중에서 흡연율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높다. 즉 육체적·정신적으로 백해무익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의 흡연문제는 보건의료적인 측면과 청소년의 비행, 탈선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역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담배는 많이 피우고, 오랜 기간 피우면, 그리고 일찍 피우면 피울수록 건강상의 피해는 그만큼 커진다. 예를 들면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5.2배인데 비하여 15세 이전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경우에는 18.7배에 달한다고 미국 의무총감의 1989년도 보고서에 보고되어 있다. 즉 청소년

*한국청소년연구소장, 보건학박사

년의 흡연은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

따라서 한 나라의 담배로 인한 건강상의 손실은 결국 그 나라의 청소년 흡연율이 얼마나 높은가에 크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매년 약 250만명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3만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우리 청소년들의 높은 흡연율을 고려하면 이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20~30년 후인 2천년대 우리나라 장년층의 건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피해를 받아 국력의 소모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흡연시작 연령을 보면 대부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흡연을 시작하게 되며, 최근에는 흡연시작 연령이 차츰 더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청소년기 흡연의 용납은 사회규범에서 첫 일탈행위로 용인하는 것이므로 다음 단계의 청소년 범죄로 연결된다. 대개 청소년 비행의 첫걸음은 흡연으로부터 시작된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 끼리는 자연스럽게 그룹(또래 집단)이 형성되고, 이는 술이나 다른 약물에 까지 탐닉하게 되는 동기가 되어 자제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각종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흡연행위는 청소년들의 꿈많은 의식세계에 전환점을 줄 수 있다. 즉 청소년의 반항·모방 심리에서 시작되는 흡연은 대개 음성적으로 이루어 지므로 적극적인 인생관보다는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성격을 조장할 수 있으며, 지나칠 경우 범죄의 늪에 빠질 소지를 만든다.

흡연은 또한 청소년의 인격발달에도 영향을 미쳐 인격장애나 정신장애의 요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숙된 성인기로 자연스

러운 이행을 어렵게 한다.

흡연이 일반적으로 다른 비행보다 먼저 시작되므로 만약 청소년의 흡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면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은 훨씬 감소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속하여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흡연은 상당기간 효과적으로 억제되어 왔으나, 1980년대 교복 및 두발 자율화로 행동의 제약이나 통제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최근 양담배의 수입과 광고 및 판촉 등의 영향을 받아 흡연은 청소년들에게 코편화 되었다.

대한결핵협회가 1985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15세이상 남자 조사대상자의 61.5%, 여자 조사대상자의 6.8%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론 조사기관인 리스피아르조사연구소가 실시한 10대 청소년의 흡연율이 1988년의 18.4%에서 1989년의 29.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0대 여자의 흡연도 1.6%에서 8.7%로 무려 5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일순교수팀이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흡연실태 조사에 의하면 남자 중학생의 경우 흡연율이 1988년 1.8%에서 1989년에는 1.5%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1년에는 3.2%로 증가하여 1988년에 비해 1.4%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88년 23.9%에서 89년에 32.0%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91년에는 32.4%로 3년전에 비해 8.5%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흡연율(44.8%)은 같은 연령의 미국 남학생의 흡연율 15%와 일본학생 26%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가히 충격적이다.

여학생의 흡연실태는 1991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흡연을 과거에 경험하였거나 현재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중학생의 경우 3.6%, 고등학생은 8.0%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흡연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흡연경험율은 11.3%에 이르고 있다.

체육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청소년(2,724명)과 취업중인 근로청소년(501명), 소년원에 재소중인 비행청소년(907명)을 대상으로 1989년에 실시한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 분석중에서 흡연의 경우를 보면 중학생 남자가 26.5%, 여자가 6.7%로 남학생이 여학생의 약4배가 되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71.1%로 여학생 15.1%의 5배 가까이 된다.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남자가 81.1%, 여자는 13.2%로서 남자가 여자의 6배가 넘는다. 비행청소년은 남자가 97.0%, 여자가 89.3%로 나타나 남녀 비행청소년 대부분이 담배를 피운다.

과거에 실시한 근로 청소년에 관한 조사는 공단에 위치한 산업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표본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흡연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등이 조사되지 않았었다.

본 조사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직업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에 관한 실태 및 지식, 태도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

II. 조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정부는 저소득시민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돕고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남녀 저소득시민, 미진학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로 훈련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소정의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이들 직업훈련원 중에서 서울에 위치한 A훈련원에서 합숙 및 통원을 하는 14세~24세 청소년 31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직업훈련원에 개설된 공과는 연삭(기계가공), 전자기기, 전기기기, 목공예, 건축배관, 조리, 읍셋인쇄, 자동차정비, 봉제, 사무자동화, 기계자수 등으로 남자 훈련생들이 여자에 비하여 훨씬 많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표집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표집 특성

단위:명(%)

나이	남 자	여 자	합 계
14	1	1	2
15	7	—	7
16	6	—	6
17	12	1	13
18	49	9	58
19	93	19	112
20	40	13	53
21	14	7	21
22	10	6	16
23	19	2	21
24	5	3	8
무응답	—	1	1
합 계	256(100.0%)	62(100.0%)	317(100.0%)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을 보면 남녀 모두 18세~20세가 많으며, 특히 19세가 남자 93명, 여자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녀 성비를 보면

조사 대상자 317명중 남자가 256명으로 여자 62명에 비하여 4배정도 많았다.

2. 조사방법

조사대상 직업훈련원의 원장 및 교사에게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훈련교사들의 협조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훈련생들에게 배부한 후 작성토록 하였다.

3.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조사대상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나이, 학력, 종교 등을 조사하였으며, 가족의 특성으로는 가족중 흡연자 유무, 아버지의 직업, 학력, 흡연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흡연실태에 대하여는 흡연동기, 흡연하는 담배종류, 흡연기간, 흡연량, 흡연양상 등을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담배 해독에 대한 지식, 흡연에 대한 태도, 금연의사 등을 조사하였다.

4. 분석방법

1992년 2월에 조사하여 수집된 자료는 전산으로 처리하였으며 응답자의 특성별 흡연실태, 흡연에 대한 태도 및 지식을 비교하였다. 비율에 대한 비교는 χ^2 검증을 하였다.

III. 조사결과

1. 흡연실태

1) 연령별 흡연실태

여의 흡연을 하지 않은 여자 근로청소년은 제외하고 남자 근로청소년의 경우 본 조사의 총 응답자는 현재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로 구분되었다. 현재 흡연자는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경우이고, 과거 흡연자는 과거에 흡연해 본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흡연하지 않는 경우이며, 비흡연자는 전혀 흡연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이다.

조사결과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대답한 청소년과 과거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연령별로 보면 <표 2>와 같다.

이를 14~19세 및 20~24세 연령군별로 보면 20세미만에서는 현재 흡연율 62.5%와 과거 흡연자 16.1%를 포함하면 흡연 경험률은 78.6%에 이르며, 20세이상 연령군에서는 현재 78.4%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과거 흡연자는 13.6%로서 흡연 경험률은 무려 92.0%에 이른다.

여자의 경우는 61명중 현재 1명(20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과거 담배를 피운적이 있는 사람은 사람은 5명(19세 2명, 21세·22세·24세 각 1명)으로 조사되어 흡연 경험률은 9.8%이었다.

2) 가족의 흡연과 청소년의 흡연을

가족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남자 청소년 응답자 252명중 186명(73.8%)이 가족중에 흡연자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는 경우 현재 흡연율이나 과거 흡연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3>). 이는 가족 구성원의 흡연과 청소년들의 흡연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

남자 청소년의 흡연율

단위 : 명 (%)

나 이	현재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	합 계
14	—	—	1(100.0)	1(100.0)
15	3(42.9)	3(42.9)	1 (14.3)	7(100.0)
16	4(66.7)	1(16.7)	1 (16.7)	6(100.0)
17	9(75.0)	2(16.7)	1 (8.3)	12(100.0)
18	29(59.2)	6(12.2)	14 (28.6)	49(100.0)
19	60(64.5)	15(16.1)	18 (19.4)	93(100.0)
20	33(82.5)	4(10.0)	3 (7.5)	40(100.0)
21	8(57.1)	5(35.7)	1 (7.1)	14(100.0)
22	8(80.0)	2(20.0)	0 (0.0)	10(100.0)
23	16(84.2)	1 (5.3)	2 (10.5)	19(100.0)
24	4(80.0)	—	1 (20.0)	5(100.0)
합 계	174(68.0)	39(15.2)	43 (16.8)	256(100.0)

〈표 3〉 가족 구성원의 흡연과 청소년의 흡연율

단위 : 명 (%)

청소년 흡연	가족중에 흡연자		합 계
	있다	없다	
현재 흡연자	140(80.5)	34(19.5)	174(100.0)
과거 흡연 경험자	23(60.5)	15(39.5)	38(100.0)
비흡연자	23(57.5)	17(42.5)	40(100.0)
합 계	186(73.8)	66(26.2)	252(100.0)

 $\chi^2=12.95$ $p=.0015$

3) 흡연동기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게 된 동기를 조사한 결과 남자의 경우 호기심으로 (31.5%)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 (25.8%),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서 (25.4%) 등이었다.

4) 규칙적 흡연여부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매일 규칙적으로 담배를 피우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자의 경우 규칙적으로 흡연하는 청소년이 76.4%로서 불규칙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 (22.4%)보다 훨씬 많았다.

5) 흡연 기간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 기간을 조사한 결과 4년이상 장기 흡연자가 37.6%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미만은 6.1%에 불과하였다(표 4).

<표 4> 흡연 기간

		단위:명(%)
기 간	남 자	
6개월 미만	13 (6.1)	
1년	24 (11.3)	
2년	36 (16.9)	
3년	44 (20.7)	
4년 이상	80 (37.6)	
무응답	16 (7.5)	
합 계	213(100.0)	

6) 하루 흡연량

흡연하는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6~10개피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5개피미만은 10.3%로 가장 적었다. 하루에 담배 1갑 이상 피우는 청소년들도 13.2%나 되었다.<표 5 참조>

<표 5> 하루 흡연량

		단위:명(%)
흡연량(개피)	남 자	
<5	18 (10.3)	
6~10	58 (33.3)	
11~15	42 (24.1)	
16~20	33 (19.0)	
>20	23 (13.2)	
합 계	174(100.0)	

7) 담배의 종류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현재 애호하는 담배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219명의 응답자 중 207명(94.5%)은 국산담배를 선호하며, 수입담배를 선호하는 사람은 12명(5.5%)에 불과하였다.

8) 담배 구입처

담배 구입은 청소년들이 담배 가게에서 직접 산다가 94.9%로 나타났으며, 담배 자판기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2.3%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근로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규제를 받는 중·고등학생들과는 달리 담배를 담배가게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흡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흡연의 해독에 대한 질문에서 남녀 청소년 모두가 담배의 해독을 알고 있었으며, 흡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0.3%에 불과하였다. 특히 여자들은 흡연이 건강에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사람이 80.6%(남자는 53.9%)로서 흡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나 심각하지는 않다고 응답한 사람 19.4%보다 훨씬 많았다. 한편 남자들은 흡연피해의 심각성을 여자보다는 덜 느끼고 있다(심각하지 않다 45.3%).

흡연하는 행동에 대한 견해를 질문한 결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않게 피우면 피워도 무방하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남자는 60.2%, 여자는 50.0%로 모두 가장 많았으며, 「개인적인 일이므로 상관하지 않겠다」는 견해도 13.8%(남자 15.2%, 여자 8.1%)나 되었다. 한편 「흡연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가진 청소년은 남자 24.6%, 여자 40.3%로 나타나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담배를 피우는 행동에 대하여 건강 피해를 더욱 절실히 느끼는 견해를 보였다<표 6>.

〈표 6〉

흡연 행동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견 해	남 자	여 자	합 계
개인적인 일이므로 상관하지 않겠다	39 (15.2)	5 (8.1)	44 (13.8)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않게 피우면 피워도 무방하다	154 (60.2)	31 (50.0)	185 (58.2)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63 (24.6)	25 (40.3)	88 (27.7)
무응답	—	1 (1.6)	1 (0.3)
합 계	256(100.0)	62(100.0)	318(100.0)

$$x^2=11.32 \quad p=.0101$$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앞으로의 금연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62.9%가 앞으로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하였다.

금연하겠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금연 이유는 대부분의 청소년들(84.6%)이 흡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IV. 고 찰

청소년들의 흡연은 어느 특정 계층에 국한되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이다. 1970년대 이후에 연구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의 흡연실태를 정리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고등학교 학생 흡연율

조 사 자	조사기간	지역	조사대상자	응답자(명)	흡연율(%)
조 상 문	1973	전국	고등학교 2학년	811	26.5
민 병 근 의	1976	전국	15~17세	2,638	12.0
입 태 빈	1976	대전	고등학교 2학년	791	26.8
민 병 근 의	1978	전국	15~17세	2,540	19.2
이 영 숙	1984	서울	고등학교 2학년	1,278	30.2
대한결핵협회	1985	전국	고등학생	606	11.1
한국소비자연맹	1986	서울·대구· 춘천·인천	고등학생	1,433	25.0
서 일 의	1988	전국	고등학생	1,755	23.9
이 해 숙 의	1989	전국	고등학생	1,602	32.0
김 일 순 의	1991	전국	고등학생	1,559	32.4

한편 한국약물남용연구소(소장 주왕기교수)가

조사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흡연율을 보

면 1980년 44.9%(남학생 83.7%, 여학생 6.1%), 1982년 38.5%(남 69.6%, 여 5.7%), 1989년 39.5%(남 62.2%, 여 16.8% 춘천조사)와 37.1%(남 58.0%, 여 16.1% 전국조사), 1990년 37.6%(남 67.6%, 여 7.6%), 1991년 29.9%(남 54.9%, 여 4.9%), 1992년 29.1%(남

53.6%, 여 4.6%)로 나타났다.

학생 청소년들의 흡연실태조사에 비하여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는 빈약한 편이다. 그동안 발표된 근로청소년의 흡연실태 조사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근로청소년의 흡연율

조 사 자	조사기간	지역	조사대상자(명)	흡연율(%)
김 성 이 외	1989	전국	501	28.2
김 소 야 자 외	1991	전국	740	36.4
현대사회연구소	1992	전국	611	36.1
주 왕 기 외	1992	전국	777	38.9

학생 및 근로청소년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선행 조사에서 나타난 흡연율보다 본 연구에서의 흡연율이 높았다. 이는 본 연구가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 직업훈련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발표된 가정에서의 흡연과 청소년들의 흡연율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부모들이 담배를 피우는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부모가 흡연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동보다 성장하면서 흡연율이 높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중에 흡연자가 있는 경우에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높았으며, 이 결과는 국내에서 조사된 다른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흡연청소년들의 흡연동기는 남녀 모두 호기심이 제일 많았다. 남자 근로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31.5%로서,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조상문의 연구(30.8%), 임태빈(51.6%), 민병근(41.7%), 이영숙(59.7%), 서

일(24.5%), 이해숙(31.4%), 김일순(31.3%) 등으로 차이는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호기심이 흡연의 주요 동기로 나타났다.

Meade(1977)는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피우는 담배량을 기준하여 하루 15개피 이하의 흡연을 가벼운 흡연 *light smoking*, 하루 16개피 이상의 흡연을 과도한 흡연 *heavy smoking*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과도한 흡연자는 32.2%로 나타나 김일순의 고등학생 조사(19.9%)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근로청소년들의 흡연량이 많다는 것은 이미 니코틴 중독에 의해 흡연이 습관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담배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고려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담배의 해독에 관한 질문에서 흡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0.3%에 불과하였다. 이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일순 1.9%, 이영숙 1.3%) 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

년들은 흡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앞으로의 금연의사를 조사한 결과는 62.9%가 금연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주된 이유는 담배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선행 연구인 조상문의 연구에서는 52.8%가 김일순의 연구에는 65.3%가 금연의사가 있었다. 임태빈의 연구에서는 52.4%가 금연의사가 있었으며, 금연교육을 받은 후에는 금연의사가 80.3%로 높아졌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 실시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신체발육과 두뇌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각종 성인병을 조기에 발병시킨다. 특히 한창 두뇌가 발달할 시기인 청소년기에 우리나라 학생들과 근로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선진국 청소년들 보다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두뇌력과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질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금연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V. 결 론

근로청소년들의 흡연실태, 흡연에 관한 지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자 1992년 7월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서울시내에 위치한 A청소년직업훈련원의 남녀 훈련원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실시하였다.

본 조사자료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조사의 응답자는 14세~24세 연령층으로 남자 256명, 여자 62명으로 총 318명이었다. 이중 현재 흡연자는 남자의 경우 68.0%이었고, 여자는 1.6%이었다. 과거 흡연 경험자는 남자 15.2%, 여자 8.2%이었다. 이를 다시 성년 나이인 20세를 기준으로 현재 흡연율을 보면 14~19세 군은 62.5%, 20~24세 군은 78.4%이었다.

2. 가족 중의 흡연여부는 남자의 경우 73.8%, 여자의 경우 68.9%가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었다.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는 경우 근로청소년들의 흡연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3. 담배를 피우는 근로청소년들의 흡연동기는 호기심이 32.7%로 제일 많았고, 매일 규칙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은 76.4%이었다. 담배를 피운 기간은 4년 이상이 37.6%로 가장 많았고, 하루 평균 흡연량을 6~10개 피가 33.3%로 제일 많았다. 흡연자의 94.5%가 국산담배를 애용하며, 94.9%가 담배 가게에서 직접 담배를 구입하였다.

4. 담배의 해독에 관한 질문에 대해 흡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0.3%에 불과하였다.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한 반응은 흡연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27.7%인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않게 피우면 피위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58.2%로 훨씬 높았다.

5.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의 장차 금연의사는 62.9%가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금연의 주된 원인은 흡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가정 및 사회환경이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과 효과적인 금연교육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VI. 대 책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것을 막고 이미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은 금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1. 가정에서의 금연지도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흡연율이 높으므로 부모 자신이 담배를 피우면 자녀의 생명을 그만큼 단축시킨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어른들은 미성년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현행 「미성년자보호법」에서 친권자의 의무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이를 감독하는 자가 미성년자의 직연을 하는 행위를 알았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제3조)'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일본의 「미성년자직연금지법」에서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직연을 제지하여야 하며 어길시에는 4천엔 미만의 과료를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성년자보호법의 제6조 별칙조항에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흡연을 제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본의 미성년자직연금지법의 친권자처벌 조항과 같이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친권자에게 미성년자의 흡연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방법이다.

2. 금연교육 실시

금연지도를 각급학교 보건교육의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여 국민학교부터 교육과정에 담배의 해로움을 알려주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학년별 금연지도 부서를 운영한다. 또한 지역별(각 구 또는 동별) 및 근로청소년을 위하여 공단별로 금연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 시·군·구 보건소를 거점으로 실천 가능한 금연 방법들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강력한 금연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금연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흡연이 우리 몸에 끼치는 해독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하여 학생들 스스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한다. ② 담배의 습관성과 니코틴 중독의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③ 주위에서 특히 또래 집단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하는 것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분석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지를 지도한다. ④ 청소년들에게 역할극을 통하여 주위에서 담배를 권할 때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 담배광고에 관하여 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⑥ 자신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를 피우지 않는 주위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⑦ 청소년들에게 흡연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통찰력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준다. ⑧ 청소년들은 흡연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토의하게 하여 ①부터 ⑦까지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3. 흡연학생의 중징계처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학생청소년의 교내

흡연을 철저히 규제 단속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것은 교내는 물론 학교 타깅이라도 학교관계 행사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위반 학생에 대한 벌칙은 각 주의 학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버지니아주의 경우 1회 위반에 이틀간 등교정지, 2회 위반에 이틀간 훈계교육, 3회 위반에 사흘간 등교정지 등의 벌칙이 적용되며, 뉴저지주의 경우는 1회 위반에 경고장, 2회 위반에 25달러의 벌금, 3회 위반에 1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등학생의 두발 및 복장이 자율화돼 사회적인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80년대초 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흡연 학생에게 유기정학처분을 내렸으나, 내신 성적이 대학입시에 반영된 이후 흡연을 이유로 중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을 꺼리고 금연학교 입교나 화장실 청소 등의 징계로 대체하기 때문에 청소년 흡연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교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4. 담배소매상의 벌칙 강화

청소년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여야 한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를 거부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라고 의심이 가는 자에 대하여 연령을 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현행 미성년자보호법 제6조 벌칙으로 미성년자에게 그가 깃용할 것을 알고 담배를 판매하거나 공여한 연초판매자 및 그 고용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벌칙조항을 강력히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벌칙

조항이 미흡하면 벌금 액수를 높여야 한다.

5.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

정부로부터 담배판매 허가를 받은 담배소매상을 제외한 모든 담배판매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한 담배판매도 금지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는 담배자판기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 청소년 흡연의 은상이 되고 있으므로 담배자판기는 다방, 술집, 당구장 등 성인전용업소를 제외한 시내 전지역에서 설치를 규제하여야 한다.

6. 담배광고의 금지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담배와 술에 대한 전면적인 광고금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20여개국이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1988년 7월에 담배사업법을 개정하여 수입 양담배의 광고를 허용하였으며 이들 외국 담배회사들의 판촉 광고에 속아 담배 피우는 것을 멋으로 생각하는 풍조도 청소년층을 포함한 흡연 인구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85년부터 담배판매세 중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90년 1월부터 담배판매세가 담배소비세로 바뀌면서 전액 지방세화되어 각 시·군에서는 지방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담배구대를 장려하고 있다. 즉 500원 이상짜리 담배 1갑에 360원의 세금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다른 시·도로 여행할 때도 거주지역에서 담배를 사줄 것을 광고물을 통해 판촉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같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사업법을 다시 개정하여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7. 포괄적인 금연법 제정

현재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보호법, 공중위생법, 공연법 등에 금연규정이 있으나 규제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하므로 포괄적인 금연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세계 70여 개국이 금연법을 제정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담배 광고에 대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는 담배사업법은 그 입법취지가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소관 행정부서도 재무부로 되어 있다.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사회부가 관계하는 부분은 단지 담배의 포장지 및 광고물에 표시되는 경고 문구를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담배가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전제위에서 담배 판매 및 광고 규제에 관한 독립된 법체계가 필요하며 소관 행정부서도 보건사회부가 되어야 한다.

8. 강력한 금연운동 추진

미국 의무총감 쿠프박사는 '담배는 코카인과 같은 마약'이라고 선언하고 미국을 오는 2천년까지는 담배를 완전히 추방하여 담배연기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강력한 금연정책과 금연운동을 추진하여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금연운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을 펴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금연을 고무하는 풍토의 조성이 시급하다.

9. 청소년 놀이시설의 확대보급

청소년을 흡연·음주·약물남용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 물질로부터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즉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유흥업소,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등 유해업소와 유해물품, 유해영상매체 및 인쇄매체 등 유해환경을 정비하며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 놀이시설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흡연·음주·약물남용 등 비행에 빠지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놀이문화가 없다는데 있다.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인들의 퇴폐적인 대중 문화의 자극을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을 실현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폭 넓은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청소년의 전전육성을 위한 10개년(1992~2001) 장기계획인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 차원에서 21세기의 주역이 될 청소년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박명윤·김일순(1990), *약물오·남용예방교육* 지도지침서, 체육부
- 박명윤(1991), “청소년 흡연 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연구 제4호, 한국청소년연구원
- 박명윤(1992), “청소년 흡연실태와 대책”, 한국학교보건학회지 5(2)
- 김일순(1988), *흡연과 건강*, 의료보험연합회·한국금연운동협의회
- 주왕기(1989), *약물남용*, 세계사
- 보건사회부(1989), *어떻게 금연할 것인가?*
- 체육부(1989),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 체육청소년부(1991),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 체육청소년부(199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 문화방송(1991), *MBC 청소년백서*
- 현대사회연구소(1992),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대책*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8), *한국인의 흡연실태*
- 한국금연운동협의회(1990), *청소년 흡연의 문제와 대책*, 제3회 금연의 날 기념 세미나 자료
-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1987), *전국 흡연실태조사성적, 결핵 및 호흡기 질환*, 34(2)
- 조상문(1973), *한국 고등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조사연구*, 공중보건잡지, 10(1) : 73~80
- 임태빈(1976), *고등학생의 흡연실태 조사 및 그 선도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숙(1984),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유영식 외(1984), *비행청소년의 담배흡연 상관변인 분석*, 신경정신의학, 23(3) : 274~288
- 민병근 외(1978), *한국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 민병근 외(1976), *한국 청소년의 꺾연양상*, 중앙대 의대 신경정신과학교실
- 민병근 외(1976), *한국 청소년의 꺾연 발생빈도*, 중앙대 의대 신경정신과학교실
- 서일 외(1988), *전국 남자 중·고등학생의 흡연 실태*, 한국역학회지, 10(2) : 219~229
- 이해숙 외(1989), *전국 남자 중·고등학생들의 2년간의 흡연력의 비교(1988~1989)*, 한국역학회지, 11(2) : 198~208
- 김일순 외(1991),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흡연력의 비교(1988~1991)*,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 박종문(1992), *청소년 약물 오·남용 실태와 예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Meade, T.W., Wald, N.J.(1977), *Cigarette smoking patterns during the working day*, Brit J Prev Soc Med, 31 : 25~29
-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Public Health Service(1976) :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 Atlanta, Y. Georgia, CDC
- Altrocchi, J.(1980), *Abnormal behavior*,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